

9월 광주에선 '열풍 변주곡' 울린다

미리 보는 6회 광주비엔날레

아시아권 비엔날레를 선도하고 있는 제6회 광주비엔날레가 '열풍 변주곡(Fever Variations)'을 주제로 9월8일부터 11월11일까지 광주 중외공원 문화벨트 일원에서 열린다.

(제) 광주비엔날레는 '아시아의 시각'으로 세계 현대미술을 재조명하기 위해 '아시아성'을 골격으로 잡았다.

특히 28개국 100여명(19개팀)의 작가가 참가하는 올해 비엔날레는 아시아 문화도시를 지향하는 광주를 '문화의 진원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전시는 2개 부문 본전시와 특별전, 제3섹터-시민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본전시

▲첫장 : '뿌리를 찾아서'는 '아시아 이야기 팔차다'를 주제로 펼쳐진다. 현대 미술 문화 속에 표현된 아시아 정신의 뿌리를 추적한다. 아시아 미술의 현대화, 세계화 경로를 추적함으로써 세계 속에서 아시아 미술의 좌표를 재검점한다.

동·서양 미술에 대한 이분법적인 시각을 해체하는 새로운 시도도 선보인다. '신화와 환상', '자연과 꿈', '정신의 흔적', '역사와 기억', '현재의 과거(가계)' 등 5개 부문으로 구성된다.

▲마지막장 : '길을 찾아서'(세계 도시 다시 그리다)는 아시아 도시를 주제로 50명의 다국적 작가가 해당 도시의 문화기관, 대안공간을 활용해 협동 프로젝트를 사전에 진행한 뒤 그 과정과 결과를 전시함으로써 창작과 새로운 담론을 창출한다.

아시아-중동-북미 국가는 '로컬간의 만남'을, 베를린-파리 유럽은 '이민자 수용과정', 부에노스아이레스-엘살토 등 남미는 '반세계화론적 논리'를 주제로 작업한다.

◇특별전=동아시아 색채를 주제로 열린다. 동양적 세계관을 상징화한 오방색의 생활미술적 활용으로 문인화 전통과 대비되는 화려한 색채 미학을 수립한 민속 미술 전시를 통해 비엔날레 전시의 대중적 확산을 시도한다. 한중일 회화류와 공예, 도예, 민속미술 작품 등이 전시된다.

◇제3섹터-시민프로그램(140만의 불꽃)=비엔날레 전시와 일반대중을 연결시키고 시민들의 주제적 참여를 유도하는 프로그램이다. 본전시의 연장선에서 놓여있는 행사는 아시아의 원형을 추적하고 새로운 정체성을 모색하는 시민참여 프로그램이다. 열린 비엔날레(축제·이벤트), 미술 오케스트라(공모전) 등 다채로운 이벤트로 구성됐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주목할 만한 작가·작품경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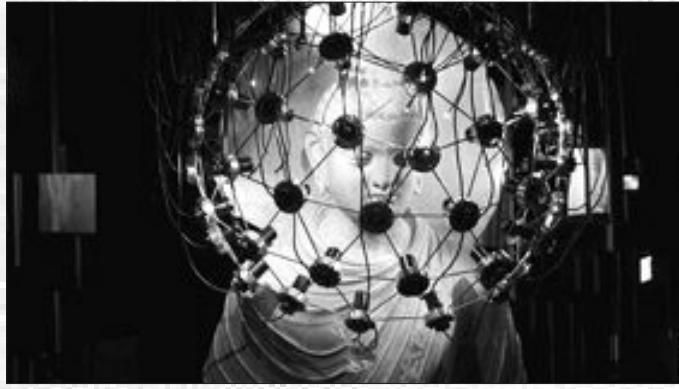
올 광주비엔날레에는 개성 있는 작품 활동으로 현대 미술의 흐름을 이끌고 있는 많은 작가들이 작품을 선보인다.

참여 작가들은 광주비엔날레가 내세우고 있는 아시아의 정서와 특징을 바탕으로 세계 무대에서 예술적 역량을 드러내고 있는 작가군이다.

슈카르트 그룹(퍼포먼스·영상·세르비아)은 지역 사회와의 소통을 작업의 바탕으로 삼고 있는 작가들이다. 드라간 프로티유와 조르주 발라조비취씨는 이를 위해 퍼포먼스, 지역사회 참여프로그램 등 신선한 작품을 선보

이고 있다. 그는 개인의 기억과 역사를 조망, 다분히 자전적인 작업경향을 띤다. 그는 알스테르담 전시에서 자신과 가까운 친지들에게 60분짜리 비디오 테잎을 건넸다. 자신의 비밀이기를 담은 한 뒤 영상으로 표출, 호평을 받은 바 있다.

국내 작가인 송상희(설치)씨는 사반업의 바탕으로 삼고 있는 작가들이다. 알스테르담전, 독일 다름슈타트 등 국제무대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저력있는 작가다.



마이클주 작 'Bodhi Obfuscatus'



제니퍼 티 작 'heart girl'



곽선경 작 '블랙 마스크 테이프 드로잉'

슈카르트그룹·송상희·곽선경 등 미술경계 뛰어넘는 다양한 시도

그의 작업의 초점은 자신이다. '나는 왜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가' 등 끊임없는 질문을 통해 사회 안의 모든 존재에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을 탐구한다.

뉴욕을 무대로 활동하고 있는 곽선경(드로잉)씨는 뉴욕드로잉 센터, 퀸스뮤지엄, 로튼다 갤러리에서 열린 다수 단체전에 참가했다.

곽씨는 특정 공간에서 얻은 첫 시각, 감성적 느낌을 즉흥적인 테이프 드로잉으로 현장에서 선보이는 작가다. 테이프 작업은 공간의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흐름을 선들로 조율해 생명력을 가진 입체물로 재해석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의 작업의 초점은 자신이다. '나는 왜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가' 등 끊임없는 질문을 통해 사회 안의 모든 존재에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을 탐구한다.

뉴욕을 무대로 활동하고 있는 곽선경(드로잉)씨는 뉴욕드로잉 센터, 퀸스뮤지엄, 로튼다 갤러리에서 열린 다수 단체전에 참가했다.

곽씨는 특정 공간에서 얻은 첫 시각, 감성적 느낌을 즉흥적인 테이프 드로잉으로 현장에서 선보이는 작가다. 테이프 작업은 공간의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흐름을 선들로 조율해 생명력을 가진 입체물로 재해석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9월8일부터 중외공원 문화벨트 일원 '아시아성' 골격 현대미술 좌표 재정검 광주 '문화의 진원지' 자리매김 계기

열 + 역동 + 팽창 + 융합 + 네트워크

'열풍 변주곡'은 아시아의 새로운 변화 에너지, 역동적 비전, 아시아권의 문화적 다양성이 열풍처럼 전세계로 파급, 확산, 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고 있다.

또 광주가 전세계 아시아권과 구심적인 탄력관계를 형성함으로써 도시 광주의 위상을 아시아 문화중심지로 올려놓는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영화안내 m-ovies Happy Time 영화안내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메가박스

13년차 정진 동정 을 봄엔 은근슬쩍 뒤집어 볼까?

엔터시네마 주창장이 편한 극장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콜롬버스 시네마 하남점 상무점

분묘개장광고(2차) 공시최고

해산 및 채권제출광고(2차) 본 회사는 2006년 3월 30일 정기주주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하고 동년 4월 12일 해산통고를 완료하였으나...

공시최고 사 건 2006카공 14 신청인 김기태

무담보 무보증 가계·당좌·어음·할인·금전 010-3144-5830

공무원대출(직장인) 공무원, 교직원, 공립, 사립, 군무원

분양대행 전문회사 (주)청담D&C

수표 가계·당좌·어음·전세금 652-7544

공시최고 사 건 2006카공 15 신청인 김기태

산행안내 나시산악회 서울 동북부 4월22일

산행안내 광주대정산악회 경복궁 정자대

산행안내 청주대정산악회 경복궁 정자대

산행안내 광주대정산악회 경복궁 정자대

공시최고 사 건 2006카공 16 신청인 이상훈

공시최고 사 건 2006카공 17 신청인 김기태

산행안내 나시산악회 서울 동북부 4월22일

산행안내 광주대정산악회 경복궁 정자대

산행안내 청주대정산악회 경복궁 정자대

산행안내 광주대정산악회 경복궁 정자대